



제주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회의가 11일 열렸다.

제주도의회 제2차회의

■ 제주도의회 농수축위 제416회 임시회 제2차회의

제주도정 메타버스 행정 구현 “글세”

의원들 “메타버스 구축 아직은 시기상조” 주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행정 구현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을)은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정이 추진하려는 ‘메타버스를 통한 커머스 구축, 메타버스 행정’ 계획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메타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는 젊은 층으로, 행정에서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조차도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경우는 드물다”면서 “시공간 제약, 언어장벽 등 현실 한계를 극복하는 해결책으로 아동, 고령층, 장애인 등 사



강경흠 의원

고대민 의원

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서비스로서 메타버스 제주를 구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커머스,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특산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구축할 계획인데, 메타버스 쇼핑몰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일부 체험 등을 통한 쇼핑몰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구축한 지역 쇼핑몰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메타버스 쇼핑몰 자체가 활성화

돼 있지 않은 상황에 제주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커머스를 구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고대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은 메타버스 구현과 관련 “쇼핑몰이 포함되고 있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청년제주물과 민간에게 보조되는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이 있다”면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쇼핑몰이 될지 모르지만 우선 메타버스 수행 관련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기존에 예산 들어가는 것만 해도 매년 15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또 국가 매할 계획인데, 메타버스 쇼핑몰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일부 체험 등을 통한 쇼핑몰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구축한 지역 쇼핑몰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메타버스 쇼핑몰 자체가 활성화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농기원, 소면적 작물 농약직권등록시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등록된 농약이 없거나 종류가 적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2019년부터 농약 허용기준강화제도(PLS)가 모든 농작물에 적용됨에 따라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면적이 적은 작물인 경우 등록된 농약이 적어 병해충 방제에 어려움이 큰 만큼, 농약직권등록시험(긴급방제가 필요한 병해충과 소면적

재배 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국가 예산으로 농약을 등록하는 제도)을 추진해 신규 농약의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농약직권등록은 농촌진흥청으로 신규 농약 등록에 대한 수요를 제출한 후, 신규 농약에 대한 약효·약해 시험과 최종 잔류성 시험을 통해 등록이 이뤄진다. 강대해기자

제주시 온라인 청년 채널 개점휴업?

두 달 넘은 ‘청년 행복 소통e’ 관심 시들 3월 말까지 123건 의견… “활성화 모색”

제주시가 강병삼 시장 취임 후 개설한 온라인 청년 소통 채널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반에 의견이 집중됐던 것에 비해 운영 두 달을 넘기면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6일부터 오픈 채팅방으로 운영된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는 일자리, 고용, 주거 등 청년 관련 사항에 대해 수시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답하는 창구다. 채널 운영자와 1대 1 채팅으로 질의응답하거나 청년 정책을 홍보하는 등 청년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정책을 발굴, 시책화하려는 취지다.

소통 채널 가동 후 8일 동안엔 일자리·창업, 결혼·출산·육아, 주거, 물가·저임금, 금융, 교육 등 95건의 의견이 모였다. 이 시기는 집중 운영 기간으로 제주시장이 직접 청년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주시는 해당 의견들을 관련 부서에 보내 시정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벌였다.

이를 포함 3월 23일까지 총 123건의 의견이 올라왔지만 이후엔 별도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 오픈 채팅방에 개선되는 청년 정책 관련

의견이 극히 드문 탓이 크다. 일각에서 ‘제주시 청년 행복 소통e’가 이벤트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이유다.

제주시에서는 채널 활성화를 위해 청년 관련 주제나 시책을 제시해 의견을 묻는 집중 운영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200명이 방문했는데 단기간에 청년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만큼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오픈 채팅방에 접속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자율적인 소통방으로 향후 지역별, 직능별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등 청년들에게 판을 깔아주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2공항 4차 도민경청회 내일 개최

오후 3시부터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현장에서 듣는 ‘4차 도민경청회’가 13일 오후 3시부터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다.

마지막으로 열리는 4차 도민경청회는 도내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제주시 동지역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다.

앞서 1차 도민경청회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지난 3월 29일 열렸으며, 2차는 지난 4월 6일 서귀포시 강정동 청소년수련관에서, 3차는 제주시 한림

수협 다목적어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도민경청회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 찬반측 대표 의견 제시, 플로어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서면 의견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공식 의견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4차 도민경청회에서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경청회 진행을 위해 3차 도민경청회와 동일한 진행방식을 적용한다.

도민경청회 개최 전 참석자들에

게 도민경청회 준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폭언이나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할 경우 마이크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플로어 의견 수렴도 되도록 인근 주민들에게 우선 발언권을 부여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도 참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설명 및 의견수렴 기간을 당초 8일에서 이달 31일까지로 연장에 도청과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도 누리집에서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

한편 도민경청회는 도 공식 유튜브 ‘빛나는 제주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양식업 종사자 대상 현장 역량 강화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 양식산업 발전과 고품질 양식 수산물 생산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양식업 종사자의 현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수산생물 방역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역량 강화교육은 양식업 종사자가 2년에 1회 이상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양식장 수 면적 1000㎡ 이상의 상업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운영자, 뉴시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교육은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

올바른 의약품 사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이해 등 3개 과제로 나눠 1일 3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회차별 선착순으로 받는다.

교육 일정 등에 관한 문의는 해양수산연구원(064-710-8513) 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051-728-8101)로 하면 된다. 고대민기자

언제, 어디서나 궁금한 복지정보 편리하게 물어보세요

전화 한통으로 복지정보 OK

↓↓↓ 아래 번호로 전화주세요 ↓↓↓

1 8 3 3 - 9 5 1 4

전화 후 “필요하신 정보를 문의해주세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복지정보 안내와 전문기관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 상담서비스 '제주복지콜' 안내

이용대상	복지정보가 필요한 제주도민 누구나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상담	1833-9514
문자상담	1877-2126
채팅상담	www.jejubokji.net → 우측 하단 상담버튼 클릭
온라인상담	www.jejubokji.net → 복지상담 게시판 글쓰기 등록
전문상담 서비스	이용대상 : 저소득층에 한하여 이용 가능(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법률·노무·영양상담 연계 지원(접수 : 제주복지콜 1833-9514)
※ 전문상담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상담 1회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제주복지콜'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를 QR코드를 인식하면 '제주복지콜'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전화 1833-9514

운영 시간 : 09:00AM ~ 18:00PM
(※ 주말 및 공휴일은 상담을 운영하지 않습니다.)